지역 소식통

정읍시, 행안부 주관 재난 관리평가 '우수기관'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정부표창과 포상금, 재난 안전 특별교부금 등의 재정적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안부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전국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다.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고,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재난관리 단계별 필수 업무와 재난유형별 관리 활동 등 역량 진단을 위한 45개 지표에 대해 종합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산재·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지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사회재난 분야 지표를 보강해 평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단체 모집

부안군에서는 청소년 선도·보호와 각종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

군은 2021년 제정된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안군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활동할 단체(1개소)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가능한 단체는 지역 내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22일까지로 군청 홈페이지 모집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가예산확보 발품행정

권익현 부안군수, 기재부 2차 심의일정 전 예산안 반영 협조 요청

권익현 부안군수가 1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기재부 주요 요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안군 사업에 대해 예산반영 협조를 구하고 부안군 정책 현안을 설명하는 발품행정을 펼쳤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을 시작으로 한경호 사회예산심의관 등 부안군 현안사업 관련 주요 간부 10여명을 면담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안군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하였다.

특히, 국토부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생태치유센터 조성(총사업비 170억원)' 사업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부안 줄포생태공원에 치유와 휴양이 공존하는 체류형 해양생태치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통령 110대 국정과제인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연계하여 부안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 외에도 △국도30호선(석포~운호)확·포장공사(총사업비 487억), 국토교통예산과 △줄포지구 배수개선(총사업비 172억), 농림해양예산과 △부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총사업비 7.5억), 기후환경예산과 △백산3단계 하수관로 신설사업(총사업비 27.3억), 기후환경예산과 △유기성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총사업비 62억), 기후환경예산과 △위도면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총사업비 27억), 기후환경예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총사업비 294억), 기후환경예산과 △부안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총사업비 260억), 문화예산과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속적인 부안군정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올해 새정부 출범으로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강화'

고창군, 생활 방역수칙 안내

고창군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대응체계 점검과 생활 방역수칙 안내 활동을 강화한다.

11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증가세와 함께 재유행의 위험이 우려된다"며 "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개인 방역 수칙, 환기 수칙 안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우세종인 BA.5형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올 여름 휴가철 재유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BA.5형은 첫 발견 이후 전 세계 62개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 우세종화 됐다. 국내에서도 28.2%(7월2일기준) 검출률을 보이며 지속해서 증가세가 예상된다.

BA.5형 변이는 지금까지 보았을 때 다른 오미크론 변이와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에 비해 치명률과 사망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그 어떤 변이보다 전염성이 강해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 확진으로 면역력이 생겼더라도 3달 이후 다시 감염될 가능성도 커 개인 방역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

고창군 보건소는 만 60세 이상(62년생 이전), 3일 이내 입국자, 병원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휴무 없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야외에서도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 시간을 최소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을 땐 동네 병·의원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국가예산 확보·폭염 등 시민 안정 대책 주문

이학수 시장이 11일 간부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보고 받고 꼼꼼한 추진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정부와 전북도의 정책 방향에 맞춘 대응 전략 마련과 관련 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과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공직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물놀이 시설 점검과 폭염 대책, 쓰레기 불법 배출 근절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도 특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물놀이 시설에 대한 세밀한 안전 점검과 함께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 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 등을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 관리와 지도·점검, 어르신 보호 활동 강화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최근 쓰레기 불법 배출 폐해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등을 담은 지역 내 초등학생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쓰레기 무단 배출 폐해 등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확진자 발생 현황 등 실시간 정보 공유와 함께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특히 하반기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 및 방역 활동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이 시장은 인사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 철저와 함께 성실하고 내실 있는 의회 업무 보고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고창군이 천연기념물(20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로 지정된 먹황새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에서 목격됐다고 11일 밝혔다.

천연기념물 먹황새 발견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 목격

전북 고창군이 천연기념물(20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로 지정된 먹황새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에서 목격됐다고 11일 밝혔다. 먹황새는 고창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종으로서 이번 발견이 처음이다.

먹황새는 황새목 황새과에 속하는 조류이며 넓은 논이나 강가 혹은 늪에서 먹이를 찾는다. 단독 혹은 한 쌍씩 행동하며 큰 나뭇가지나 바위 절벽에서 번식한다. 국내에는 과거 안동지방에서 소수가 번식했던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번식하지 않는다.

해외에는 동아시아 일대와 남아프리카, 서남유럽, 중앙·동유럽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고창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기착지로, 지난해 7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또한,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서해 고유종인 범게를 비롯해 적색목록 위기종인 황새가 서식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물새 90종과 대형저서생물 255종이 서식하며, 염생식물 26종이 있다.

고창군청 나철주 문화유산관광과장은 "먹황새는 인적을 느끼거나 환경이 훼손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는 등 환경에 매우 민감한 철새로서 고창갯벌을 찾아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철새보전에 관한 대중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철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고창갯벌을 찾아오는 철새들의 안정적 서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변산면 3개 사회단체, 문화군민운동 동참

부안군 변산면은 지난 11일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개 단체가 모여 모항해수욕장에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동참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실시된 동참결의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대 실천과제인 친절, 질서, 청결을 목표로 사회단체가 모여 매력부안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안의 대표 관광지 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고 싶어지는 부안, 살고 싶어지는 부안군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력부안 캠페인을 열심히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변산면 이장협의회장은 "성공적인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군민운동을 홍보하고 솔선수범하여 매력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변산면장은 "매력부안 만들기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문화군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변산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